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대한 부모애정, 또래소외경험, 그리고 종교의 조절효과 연구

국문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애정, 또래소외경험, 그리고 종교유무 및 종교행사 참석 빈도가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조절효과가 있는지 탐색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모관계, 또래관계, 그리고 종교의 역할을 통하여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에 관한 경험적 조사연구인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연구 과정을 통해 나타난 결론은 첫째, 청소년이 인식하는 자아 존중감, 부모애정에는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이 인식하는 자아 존중감은 성별, 부모의 최종학력, 가구 연간 소득, 부모애정, 소외경험, 종교 유무/종류, 그리고 종교: 절/교회 등 방문빈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인구학적인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애정, 또래소외경험이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을 조절하는 변인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던 종교유무 및 종교행사 참석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이 추가적으로 논의되었다.

I. 서론

청소년기는 사회에 진입하기 위하여 성인으로서 신체·정서·인지·사회적 발달을 도모해야 하는 반면에 학업에 대한 과중한 부담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인지·사회적 발달의 기반이 되는 정서적 불안과 갈등이 심화되는 삶의 전환기에 해당한다(전혜진·유미숙, 2015). 과중한 학업스트레스, 진로문제 갈등 등 다양한 심리적 불안과 갈등은 자살, 학교폭력, 학업중단, 흡연 및 음주, 범죄 등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13-15세 청소년의 우울증 유병율은 최대 19.6%에 달한다(Park & Kim, 2011). 2013년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15-19세 청소년의 자살율은 28.5명에 이른다(Wikipedia, 2015).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4만 8천명에 달하며(교육부, 2014), 2012년 학업중단율이 중학교 0.9%, 고등학교 1.8%에 이르고(여성가족부 2014년 청소년백서, 2014:284), 청소년 흡연 및 음주경험율은 각각 21.4%, 43.5%(여성가족부 2014년 청소년백서, 2014:236)나 된다. 소년범죄자가 2013년 한해에만 91,633명(강력범: 2,521명, 폭력범: 22,119명, 재산범:45,735명, 교통사범: 9,845명, 저작권법 위반: 446명, 기타: 10,96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다(여성가족부 2014년 청소년백서, 2014:366).

청소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이와 같이 다양한 내·외적 문제행동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자아 존중감이 거론될 수 있다. 자아 존중감은 자신을 긍정적이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치의 차원, 자신에게 맡겨진 과업을 완수해 낼 수 있거나 부족하다는 신념의 차원, 자신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직면하여 긍정적이나 부정적으로 직면하려는 정도의 차원 등 세 가지 차원을 의미한다(Curry & Johnson, 1990). 자아 존중감은 유아기와 학령기를 지나면서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발달

하는 과정을 거치나, 청소년기에는 또래와 비교를 쉽게 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절감해가는 시기에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Robin, Trzesniewski, Tracy, Gosling & Potter, 2002). 특히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자아 존중감이 남학생에 비하여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Kling, Hyde, Showers & Buswell, 1999). 청소년이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가지게 된다면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 과업완수 실패부족, 그리고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이해 등으로 심리적 위축을 가져오고(정익중·박현선·구인회, 2006), 학업성취와 또래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심각한 학교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이지언·정익중·백종림, 2014).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요소들이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1, 2차 사회화가 경험되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애정, 또래소외경험, 그리고 청소년의 종교가 조절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탐색해 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대한 성별차이, 부모양육방식에 관한 연구는 일부 검증되었으나 부모양육방식의 하위요인인 부모애정, 또래소외 경험, 그리고 종교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희소하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는 부모양육방식의 하위요인인 부모애정, 또래소외, 그리고 종교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1, 2차 사회화가 경험되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부모애정, 또래소외, 그리고 종교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개입 및 예방 프로그램을 제시하려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무엇인가?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할 때 부모애정, 또래소외경험, 그리고 종교가 조절효과가 있는가? 이다.

II. 이론적 배경

부모애정과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아 존중감에 관련이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와 같은 주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태도와 행동을 의미하는데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의 자녀내·외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자아 존중감이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나 목표를 성취할 수 있으며, 주변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볼 때(Curry & Johnson, 1990), 부모의 민주적이고 애착적인 양육태도에 의하여 부모-자녀 간 애착관계가 형성된다면 자녀의 자아 존중감 고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성연·이은경, 2009; 임선아, 2013). 1차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부모에 의하여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질 때 자녀는 자신에 대한 부모의 평가를 내재화한 결과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가지게 되어 학업성취와 같이 주어지는 목표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장석진·송소원·조민아, 2012). 부모가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일상활동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존중·칭찬·격려·협력적인 관계까지 가진다면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감과 자신을 존중하는 인식의 수준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정미선, 2010).

또래소외 경험과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또래소외 경험에 의한 청소년의 심리적 변화는 집단 따돌림 피해 대상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함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의사표시를 하지 못 하게 됨으로 낮은 수준의 자아 존중감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곽금주, 2000). 가족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학교에서 경험하는 2차 사회화의 적극적 대상이어야 할 또래에 의하여 소외될 때 피해 청소년은 대인기피 현상과 일상생활에 소극적이고 또래에 비하여 열등감을 가지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김중운, 2003). 자아 존중감의 핵심요소가 가치, 성취, 문제대처로 이해할 때(Curry & Johnson, 1990) 또래소외를 경험하는 피해 청소년에게는 자신에 대한 가치평가, 목표에 대한 성취, 문제대처 능력 등 자아 존중감의 핵심요소 모 든 것이 어려워진 상태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종교생활과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청소년의 종교생활이 정서적 안정을 가지는데 기여하고, 자아 존중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종교가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의 완화, 좌절감의 회복 등 심리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어 여러 가지 실패경험 및 성취 미흡에 따른 낮은 자존감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Blazer, 2012). 종교생활을 통해 얻어지는 경건의 능력이 삶의 의미를 가지게 하여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도록 돕는 특성이 있다면 이는 자신에 대한 가치부여와 새로운 성취목표를 가지는 자아 존중감 회복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임현승(2013)은 시설거주 청소년의 종교성이 자아 존중감 고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동 연구는 가족해체, 학대 및 방임으로 인해 사회적 도움 속에 있어 매우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특이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 청소년에게도 종교생활이 자아 존중감 고양에 기여하는 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다는 점이 아쉽다. 따라서 본 연구가 일반청소년들의 종교생활이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형성에 조절역할을 하는지 탐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에 관한 경험적 조사연구인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KCYPS의 표본은 2010년 기준 전국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다단계화집락 표집 방식으로 추출되었는데, 16개 광역시·도와 도시규모(대도시/중소도시/군 지역)를 교차하여 추출한 27개 집락별로 확률비례통계추출법(PPS)에 의거하여 조사대상 학교 선정하였고 조사대상 학교 수는 한 학교 당 한 학급씩 학교별 해당 학년의 학급 수와 학급별 학생 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뒤 무작위로 표본학급을 선정하였다.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조사대상 학교 확정하였으며 조사를 거절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목록상의 인접한 다른 학교로 대체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2010년 제1차 조사를 완료한 표본(원 표본)은 총 2,351명이었다. 2010년에 확정된 원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추적조사가 실시되었고 본 연구가 사용한 데이터는 2013년 제4차 조사한 결과이다.

2. 측정도구

■ 독립변인

(1) 인구사회학적 변인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에서 수집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변인들을 사용하였다 (표 1 참고).

<표 1> 인구사회학적 변인 측정방법

| 변인 | 측정방법 |
|-------------------------|--|
| 성별 | 1=남자, 2=여자 |
| 나이 | |
| 부모 구성 | 1=친아버지+친어머니, 2=친아버지만, 3=친어머니만, 4=친아버지+새어머니, 5=친어머니+새아버지, 6=부모님 모두 안 계심 |
| 학력: 부친 | 1=중졸 이하, 2=고졸, 3=전문대 졸, 4=대졸, 5=대학원 졸 |
| 학력: 모친 | 1=중졸 이하, 2=고졸, 3=전문대 졸, 4=대졸, 5=대학원 졸 |
| 근로여부: 부친 | 1=일을 하고 있다, 2=일을 하고 있지 않다 |
| 근로여부: 모친 | 1=일을 하고 있다, 2=일을 하고 있지 않다 |
| 가구 연간 소득 (만원) | |
| 종교 유무/종류 | 0=무교, 1=불교, 2=기독교, 3=천주교, 4=기타 |
| 종교: 절/교회 등 방문빈도- 주 기 | 0=종교는 있으나 가지 않는다, 1=일주일에 한번, 2=한 달에 한번, 3= 일 년에 한번 |

(2) 부모애정

양육방식은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양육태도검사 중 17문항을 발췌한 패널의 양육방식 문항들 (감독, 비일관성, 과잉간섭, 애정, 과잉기대, 합리적 설명) 중에서 애정 4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는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부모님께서는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부모님께서는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신다,’ ‘부모님께서는 나에게 칭찬을 잘 해 주신다’ 등이다.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값이 .819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각각 항목 간 내적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부모애정 척도는 각 문항 당 1점에서 4점의 범위를 갖는 Likert 척도였으며 점수들을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3) 또래소외

또래소외는 Armsden & Greenberg(1987)의 애착척도(IPPA)를 변안, 수정한 김지연 (1995), 황미경 (2010)의 문항을 활용하여 구성하였으며 총 25문항 중 하위영역별로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각 하위영역 당 3개씩 총 9문항으로 구성된 패널의 양육방식 문항들(의사소통, 신뢰, 소외) 중에서 또래소외의 4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 예를 들면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하여 준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친구들

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 등이다.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값이 .62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또래소외 척도는 각 문항 당 1점에서 4점의 범위를 갖는 Likert 척도였으며 점수들을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 종속변인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감 Rogenberg(1965)의 자아 존중감 척도를 번안한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2000)의 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 예를 들면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나에게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등이 있다.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값이 .63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자아 존중감 척도는 각 문항 당 1점에서 4점의 범위를 갖는 Likert 척도였으며 점수들을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3. 자료 분석방법

KCYPs를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한 척도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에 사용한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테스트를 실행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대한 부모애정·또래 소외경험, 종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변인들의 기술통계량

조사된 연구대상자 2,351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1,176명(50%), 여학생이 1,175명(50%)로 나타났고 평균연령은 11.9세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청소년(1,994명, 84.9%)의 부모가 친아버지+친어머니로 구성되었고, 284명(12.1%)이 한부모 가족으로 조사되었다. 부친의 최종학력은 중졸이하 3.5%, 고졸 42.9%, 전문대 졸 12.9%, 대졸 34.4%, 대학원 졸 6.4%로 모친 중졸이하 3.6%, 고졸 57.5%, 전문대 졸 12.9%, 대졸 23.3%, 대학원 졸 2.7%에 비하여 부친의 최종학력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친이 근로하는 경우가 2,101명(96.5%), 모친이 근로하는 경우가 1,376(62.5%)명으로 부친의 근로참여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종교를 가진 경우(1,109명, 46.1%)가 무교(1,032명, 43.9%)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교: 교회/절 등 방문빈도, 주기는 종교는 있으나 가지 않는 학생들이 382명(29.1%), 일주일에 한번 604명(46%), 한 달에 한번 329명(9.3%), 일 년에 한번 205명(15.6%)으로 조사되었다.

<표 2> 변인들의 기술통계량 (n=2,351)

| 변인 | 구분 | 빈도 | % |
|---------------------|----------------|-------|----------|
| 성별 | 남자 | 1,176 | 50.0 |
| | 여자 | 1,175 | 50.0 |
| 부모구성 | 친아버지+친어머니 | 1,994 | 84.9 |
| | 친아버지만 | 123 | 5.2 |
| | 친어머니만 | 161 | 6.9 |
| | 친아버지+새어머니 | 28 | 1.2 |
| | 친어머니+새아버지 | 17 | .7 |
| | 부모님 모두 안 | 26 | 1.1 |
| | 계심 | | |
| 최종학력: 부친 | 중졸 이하 | 75 | 3.5 |
| | 고졸 | 930 | 42.9 |
| | 전문대 졸 | 280 | 12.9 |
| | 대졸 | 745 | 34.4 |
| | 대학원 졸 | 138 | 6.4 |
| 최종학력: 모친 | 중졸 이하 | 78 | 3.6 |
| | 고졸 | 1,262 | 57.5 |
| | 전문대 졸 | 282 | 12.9 |
| | 대졸 | 511 | 23.3 |
| | 대학원 졸 | 60 | 2.7 |
| 근로여부: 부친 | 일을 하고 있다 | 2,101 | 96.5 |
| | 일을 하고 있지 않다 | 76 | 3.5 |
| | | | |
| 근로여부: 모친 | 일을 하고 있다 | 1,376 | 62.5 |
| | 일을 하고 있지 않다 | 827 | 37.5 |
| | | | |
| 종교유류: 종류 | 무교 | 1,032 | 43.9 |
| | 불교 | 403 | 17.1 |
| | 기독교 | 690 | 29.3 |
| | 천주교 | 203 | 8.6 |
| | 기타 | 23 | 1.0 |
| 종교: 교회/절 등 방문빈도, 주기 | 종교는 있으나 가지 않는다 | 382 | 29.1 |
| | 일주일에 한번 | 604 | 46.0 |
| | 한 달에 한번 | 327 | 9.3 |
| | 일 년에 한번 | 205 | 15.6 |
| | 나이 | | 평균 11.9세 |

2.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부모애정, 또래소외 경험의 성별차이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부모애정, 또래소외 경험, 종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부모애정, 또래소외 경험의 성별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자아 존중감과 부모애

정에 성별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2.78, p<.01, t=2.08, p<.05$).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 존중감이 높았고, 부모애정은 여학생이 보다 높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자아 존중감, 부모애정, 또래소외 경험의 성별차이

| 변인 | 남학생(n=) M(SD) | 여학생(n=) M(SD) | t |
|--------|------------------|------------------|---------|
| 자아 존중감 | 21.94(3.37) | 21.59(2.57) | 2.782** |
| 부모애정 | 7.88(2.71) | 8.11(2.62) | 2.08* |
| 또래소외경험 | 8.95(2.07) | 8.96(1.91) | .06 |

* $p<.05$, ** $p<.01$

3. 변인들의 상관관계

선택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과 자아 존중감, 부모애정, 또래소외 경험 간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참고).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볼 때 성별과 나이·부모애정·종교방문 빈도·자아 존중감, 나이와 가구 연간소득, 부모구성과 최종학력(부친)·최종학력(모친)·근로여부(부친)·근로여부(모친)·가구연간소득·부모애정, 최종학력(부친)은 최종학력(모친)·근로여부(부친)·종교유무·자아 존중감, 최종학력(모친)은 근로여부(부친)·연로여부(모친)·종교유무·자아 존중감, 근로여부(부친)은 가구연간소득·부모애정, 가구연간소득은 부모애정·소외경험·자아 존중감, 부모애정은 소외경험·자아 존중감, 종교유무는 종교방문빈도·자아 존중감과 각각 정적 혹은 부적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4> 전체 변인들 간 상관관계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
| 1 | 1 | | | | | | | | | | | | |
| 2 | -.074** | 1 | | | | | | | | | | | |
| 3 | -.027 | .000 | 1 | | | | | | | | | | |
| 4 | .004 | .007 | -.112** | 1 | | | | | | | | | |
| 5 | .003 | -.023 | -.086** | .623** | 1 | | | | | | | | |
| 6 | .000 | .021 | .069** | -.121** | -.078** | 1 | | | | | | | |
| 7 | -.027 | .024 | -.095** | .007 | -.018 | .035 | 1 | | | | | | |
| 8 | -.019 | .051* | -.224** | .325** | .326** | -.167** | -.012 | 1 | | | | | |
| 9 | .043* | -.005 | .095** | -.061** | -.083** | .048* | -.022 | -.075** | 1 | | | | |
| 10 | .001 | -.008 | .010 | .025 | .039 | -.032 | .007 | .061** | -.119** | 1 | | | |
| 11 | .035 | -.027 | .048* | .065** | .052* | .000 | -.015 | -.016 | -.007 | -.028 | 1 | | |
| 12 | -.056* | -.016 | .000 | .001 | .037 | .011 | .027 | -.028 | .007 | .021 | -.155** | 1 | |
| 13 | -.057** | -.018 | .039 | -.077** | -.058** | .019 | .024 | -.059** | .146** | .228** | -.058** | .019 | 1 |

1=성별, 2=나이, 3=부모구성, 4=최종학력: 부친, 5=최종학력: 모친, 6=근로여부: 부친, 7=근로여부: 모친, 8=가구 연간 소득(만원), 9=부모애정, 10=소외경험, 11=종교 유무/종류, 12=종교: 절/교회 등 방문빈도- 주기, 13=자아 존중감

* $p<.05$, ** $p<.01$, *** $p<.001$

4. 자아 존중감에 대한 부모애정·또래 소외경험, 종교의 조절효과

청소년이 인식하는 자아 존중감에 부모애정·또래소외경험과 종교유무 및 종교행사 참석 빈도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제변인에 부모애정·또래소외경험과 종교유무 및 종교행사 참석 빈도를 회귀 분석에 투입하였다. 상호작용 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변수의 원래 값에서 평균을 뺀 값을 사용하는 평균중심화(centering)을 사용하여 부모애정·또래소외경험과 종교유무 및 종교행사 참석 빈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와 같다. 통제변수와 조절변수, 그리고 상호 작용 항 간에 다중공선성 문제 확인을 위하여 공차한계(Tolerance)와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3이상이었으며, VIF 값 역시 3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먼저 청소년이 인식한 자아 존중감과 인구사회학적 변인 관계에서 모델 I의 주 효과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최종학력(부친, 모친)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최종학력(부친 $\beta=-3.174$)은 $p<.01$ 수준에서 부적적으로 그리고 최종학력(모친 $\beta=.082$)은 $p<.01$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선택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부모애정 및 또래소외경험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모델 II에서는 주 효과에 대하여 독립변수인 최종학력(부친, 모친)은 유의한 결과를 유지하였고, 조절변수인 부모애정($\beta=.058$)은 $p<.05$ 수준에서 그리고 또래소외경험($\beta=.155$)은 $p<.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게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정이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고, 또래소외경험이 없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델 III에서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자아 존중감에 대하여 주효과인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부모애정 및 또래소외경험에 종교유무 및 종교행사 참석 빈도를 투입한 결과 종교유무 및 종교행사 참석 빈도 모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종교유무나 종교행사 참석 빈도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자아 존중감에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자아 존중감에 대한 부모애정·또래 소외경험, 종교의 조절효과

| 변인 | B | S.E. | β | t | VIF |
|-----------------------|-----------|-------|----------|----------|-------|
| 성별 | -.244 | .163 | -.046 | -1.500 | 1.012 |
| 나이 | -.052 | .231 | -.007 | -.225 | 1.016 |
| 부모구성 | -.111 | .132 | -.026 | -.838 | 1.011 |
| 최종학력: 부친 | -.298 | .094 | -.124 | -3.174** | 1.615 |
| 최종학력: 모친 | .221 | .105 | .082 | 2.098** | 1.611 |
| 근로여부: 부친 | .378 | .505 | .023 | .750 | 1.042 |
| 근로여부: 모친 | -.023 | .167 | -.004 | -.135 | 1.011 |
| 가구 연간 소득 (만원) (상수) | 9.480E-7 | .000 | .001 | .033 | 1.148 |
| R ² | 22.575 | 2.840 | | 7.949 | |
| F 값 | | | .013 | | |
| | | | 1.729** | | |
| 성별 | -.278 | .161 | -.053 | -1.729 | 1.015 |
| 나이 | -.035 | .229 | -.005 | -.154 | 1.018 |
| 부모구성 | -.140 | .131 | -.033 | -1.070 | 1.014 |
| 최종학력: 부친 | -.281 | .093 | -.117 | -3.030** | 1.617 |
| 최종학력: 모친 | .216 | .104 | .080 | 2.072** | 1.618 |
| 근로여부: 부친 | .365 | .500 | .023 | .730 | 1.046 |
| 근로여부: 모친 | .011 | .165 | .002 | .068 | 1.014 |
| 가구 연간 소득 (만원) | -6.506E-6 | .000 | -.007 | -.227 | 1.151 |
| 부모애정 | .061 | .033 | .058 | 1.860* | 1.051 |
| 또래 소외 경험 (상수) | .208 | .041 | .155 | 5.013*** | 1.037 |
| R ² | 20.108 | 2.862 | | 7.026 | |
| F 값 | | | .028 | | |
| | | | 4.032*** | | |

| | | | | | |
|----------------------|-----------|-------|----------|----------|-------|
| 성별 | -.279 | .161 | -.053 | -1.734 | 1.017 |
| 나이 | -.036 | .229 | -.005 | -.159 | 1.018 |
| 부모구성 | -.140 | .131 | -.033 | -1.072 | 1.014 |
| 최종학력: 부친 | -.283 | .093 | -.117 | -3.042** | 1.619 |
| 최종학력: 모친 | .224 | .105 | .083 | 2.129** | 1.636 |
| 근로여부: 부친 | .373 | .500 | .023 | .746 | 1.046 |
| 근로여부: 모친 | .014 | .165 | .003 | .087 | 1.015 |
| 가구 연간 소득 (만원) | -7.342E-6 | .000 | -.008 | -.256 | 1.153 |
| 부모애정 | .061 | .033 | .058 | 1.878* | 1.052 |
| 또래 소외 경험 | .207 | .042 | .154 | 4.992*** | 1.038 |
| 종교 유무/종류 | -.068 | .114 | -.018 | -.594 | 1.042 |
| 종교기관 방문빈도-주기 (상수) | -.048 | .110 | -.013 | -.436 | 1.040 |
| R ² | 20.320 | 2.883 | | 7.049 | |
| F 값 | | | .026 | | |
| | | | 3.394*** | | |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애정, 또래소외경험, 그리고 종교유무 및 종교행사 참석 빈도가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조절효과가 있는지 탐색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모관계, 또래관계, 그리고 종교의 역할을 통하여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과정을 통해 나타난 결론은 첫째, 청소년이 인식하는 자아 존중감, 부모애정에는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자아 존중감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있고, 부모애정의 경우에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 존중감 수준이 높다는 기존연구와 일치된다(Kling, Hyde, Showers & Buswell, 1999). 자아 존중감의 성차는 사회적으로 여성에 비하여 남성이 존중받는 인식의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춘기 청소년의 특성상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부모와 애착관계를 밀접하게 형성하는 특성이 투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이 인식하는 자아 존중감은 성별, 부모의 최종학력, 가구 연간소득, 부모애정, 소외경험, 종교 유무/종류, 그리고 종교: 절/교회 등 방문빈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환경이 좋을수록, 심각한 문제경험이 적을수록, 종교 등 정서적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록 자아 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연구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자아 존중감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고한 것과 일치하였다(박성연·이은경, 2009; 석소현·신성희, 2010; 임선아, 2013; 임현승, 2013).

셋째, 분석에 투입된 사회·인구학적인 변인들 (성별, 나이, 부모구성, 부모학력, 부모 근로여부, 가구 연간소득) 가운데 부모의 학력만이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른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과 관련이 있다는 기존 연구(Şahin, Barut, Ersanli, 2013) 결과와 일치한다. 부모의 학력수준과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과 관계는 기존연구와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학력수준이 높은 부모가 자녀양육방식에 대한 이해가 높아 청소년과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낮은 자아 존중감 해소를 위하여 부모의 교육 수준이 낮아 자녀에 대한 이해와 상호작용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양육방식을 변화시키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인구학적인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애정, 또래소외경험이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을 조절하는 변인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 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은 부모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박성연·이은경, 2009; 임선아, 2013) 또래로부터 소외경험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연구 결과(최창용·이주연·신유미, 2015)와 일치한다. 이는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이 부모관계와 또래관계에 의하여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부모양육훈련을 제공하고 또래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청소년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와 문제해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높은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던 종교유무 및 종교행사 참석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50%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아쉬운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에 진입하기 위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시기에 청소년이 인식하는 자아 존중감은 정서적, 심리적인 자양분으로 역할 할 수 있다. 자아 존중감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긍정적인 평가를 통하여 타인에 비하여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나 목표를 성취할 수 있으며, 주변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작용한다(Curry & Johnson, 1990). 따라서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있다면 학업과 직업 선택 등 진로를 결정하고 현재 생활에 충실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

청소년이 인식한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부모애정, 또래소외경험, 그리고 종교유무 및 종교행사 참석 빈도의 조절효과를 탐색한 결과 부모애정과 또래소외경험이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가족 가치관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급속한 가족해체, 맞벌이 가족 증대에 따른 부모·자녀 간 긍정적 상호작용의 기회 감소, 입시위주의 경쟁심화 및 학교폭력으로 인한 또래 소외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및 또래관계 개선을 통하여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으므로 부모 및 또래관계 개선을 목적하는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부모들이 청소년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이도록 하고, 소외경험을 하고 있는 청소년을 파악하여 그러한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노력이 요청된다.

비록 종교유무 및 종교행사 참석 빈도가 조절효과로 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으나 자아 존중감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종교가 자아 존중감과 정적관계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종교를 가지는 것이 자아 존중감 향상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종교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희소한 상태에서 청소년이 인식하는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부모애정, 또래소외경험의 조절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이 미흡한 종교유무 및 종교행사 참석 빈도의 조절효과까지도 탐색해 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차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청소년의 구체적인 신앙 활동이 가지는 영향력을 측정

하지 못하는 연구한계를 가지고 있다.

추후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신앙생활의 보다 구체적인 측면인 기도생활, 성경읽기, 성경공부 참여 정도가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이 인식하는 자아 존중감에 구체적인 신앙생활이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체육·예술 활동 등과 함께 주요한 과외활동으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청소년에게 적절한 맞춤형 신앙 활동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여겨진다.

ABSTRACT

The Mediation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Peer Isolation, and Religion On Adolescent Self-Esteem

This research explored the possibility of increasing adolescent self-esteem through Parental attachment, Peer isolation, and Religion, by analysing The Mediation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Peer isolation, and Religion on Adolescent's recognizing self-Esteem, controlling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The study used selected variables of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which collected data regarding children and youth development.

The result of this study found that there are gender differences between adolescent's recognizing Parental attachment and Peer isolation. Second, adolescent self-esteem was associated with gender, parental education, familial income, parental attachment, isolation experience, religion, and religious participation. Third, Parental attachment and Peer isolation mediated the adolescent self-esteem, even when socio-demographic variables were controlled. The predicted variables such as Religion and religious participation did not show any statistical importance. The study limitation and further research suggestions were also discussed.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편 (2001). “심리척도 핸드북 II”. 서울: 학지사.
- 교육부 (2014.11.28). “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 김중운 (2003). “분산적·집중적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따돌림 아동의 자아 존중감과 대인관계 및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비교.” 『상담학연구』, 4(3), 479-497.
- 김지연 (1995).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 존중감의 관계”. 『숙명여자 대학교 학위논문』.
- 박성연·이은경 (2009).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구성요소의 타당성 연구: 분리 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아동학회지』, 30(2), 211-229.
- 석소현·신성희 (2010). “양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 학령기 아동의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대한간호학회지』, 40(3), 367-377.
- 이지연·정익중·백종립 (2014). “학교적응의 예측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아동학회지』, 35(2), 1-23.
- 임선아 (2013). “민주적 부모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자존감, 학교적응에 미치는 구조모형 비교: 저소득층 아동과 비저소득층” 『아동교육심리연구』, 27(1), 125-142.
- 임현승 (2013). “시설거주 청소년의 종교성이 자아 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회사회사업』, 22, 99-122.
- 장석진·송소원·조민아 (2012). “공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9(5), 161-187.
- 정미선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가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25, 140-170.
- 전혜진·유미숙 (2015).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 존중감, 진로성숙도 및 미시체계 변인의 경로분석.” 『청소년학 연구』, 22(6), 75-104.
- 정익중·박현선·구인회 (2006). “피학대아동이 비행에 이르는 발달경로.” 『한국사회복지학』, 58(3), 223-244.
- 최창용·이주연·신유미 (2015). “중학생의 또래소외감과 이원적 자아 존중감 간의 상호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6(3), 247-276.
- 황미경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및 사회불안과의 관계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척도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lazer, D. (2012). “Religion/Spirituality and Depression: What Can We Learn from Empirical Studi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9, 10-12.
- Curry, N. E., & Johnson, C.N. (1990). Beyond self-esteem: Developing a genuine sense of human value. In *Research Monograph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Vol. 4). Washington DC: NAEYC.
- Kling, K. C., Hyde, J. S., Showers, C. J., & Buswell, B. N. (1999). Gender differences in self-esteem: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5(4), 470-500.
- Park, J. H. & Kim, K. W. (2011). A review of the epidemiology of depression in Korea. *Journal of Korea Medical Association*, 54, 362-369.

- Robins, R. W., Trzesniewski, K. H., Tracy, J. L., Gosling, S. D., & Potter, J. (2002). Global self-esteem across the life span. *Psychology and Aging, 17*(3), 423-434.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Şahin, E., Barut, Y., Ersanli, E. (2013). Parental Education Level Positively Affects Self-Esteem of Turkish Adolescents. *Journal of Education and Practice, 4*(20), 87-97.
- Wikipedia. (2015). List of countries by suicide rate.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suicide_rate